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곳곳 기념행사

시교육청 30일부터 이틀간 '남북 교육교류 국제포럼'
30일 옛 나주역 인근서 나주학생운동 기념탑 제막식
31일 기념 음악회...5·18 광장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에 반발해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독립을 외쳤던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2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행사 '남북 교육교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첫날 개막식 이후 북한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육로를 만들기 위한 '코라시아 로드런' 아시아자 가수인 김원중씨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사는 통일, 교육으로부터!'를 주제로 토크콘서

트가 열린다.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송영길 국회의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 둘째 날 국제학술행사에서는 빌리 아이젤레 전 독일 뮌헨 푸르슈테리트 교장이 '동·서독 학생교류 사례와 의미', 요르그 그 미하엘 도스탈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독일 통일 후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독일에서 온 빌리 아이젤레 교장은 과거 통일 독일 이전, 동독과 서독 간 상호 학생교류를 가장 많이 진행한 바 있다.
이밖에 북한의 주요 명소를 가상현실로

체험하고, 광주지역 학생들의 통일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또 나누시는 오는 30일 '나주시민의 날'에 맞춰 죽림동 옛 나주역 인근에서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제막식을 개최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촉발한 나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리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막식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전시회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11월 1일에는 '나주학생독립운동의 계승과 해방 공간'을 주제로 학술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도 31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90년 전의 함성, 전국을 넘어 통일로'를 주제로 '제6회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9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을 전국화하고 평화통일로 이끌어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참여하는 행사추진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교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단체의 참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경연공연 7개팀과 특별공연 3개팀 등 총 10개팀 249명이 참여하는 학생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외에도 기념배지를 증정하고, 기념촬영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이벤트도 곁들인다.
11월 2일에는 5·18민주광장에서 학생독립운동 퍼포먼스와 플래시몹, 전국 청소년 500인 대회 등이 진행되는 '광주청소년 독립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같은 날 5·18민주광장과 나주충흥골드리조트에서는 이틀간 전국 학생들이 참여해 역사토크콘서트와 문화예술축전을 펼치는 '전국학생 문화예술축전'이 열리고, 전남대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도 '학생독립운동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밖에 오는 31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9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정부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7 해질 17:46 달뜨기 02:59 달지기 16:17

맑은 가을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 많음	13/22	보성	구름 많음	11/22
목포	구름 많음	15/21	순천	구름 많음	14/25
여수	구름 많음	16/23	영광	구름 많음	11/21
나주	구름 많음	11/22	진도	구름 많음	14/21
완도	구름 많음	14/22	전주	구름 많음	12/22
구례	구름 많음	12/23	군산	구름 많음	12/21
강진	구름 많음	12/23	남원	구름 많음	12/22
해남	구름 많음	10/22	축산도	구름 많음	16/21
장성	구름 많음	11/21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04:58 / 17:11	11:40 / ---:---
여수	00:39 / 12:47	06:52 / 19:12

◇ 주간 날씨

날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11/1(금)
날씨	☀	☀	☀	☀	☀	☀	☀
기온	11/16	7/18	8/19	11/18	9/20	10/20	10/20

사죄 없는 해결 방안은 제2의 모욕 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0)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한일논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피해자 중심의 해법 마련하라”

“일본 사죄 없는 방안은 모욕”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에 앞서 정부의 과거사 해결 논의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의 해결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조해 온 것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식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 역시 자금을 보태는 '1+1+α' 방식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는 충분한 소통 없이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돈만 손에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해결책으로 피해자들은 인권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만 인식,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31사단 협업 드론교육센터 준공

‘온빛누리 드론센터’ 28일 개장

전군(全軍) 최초로 군·관이 협업해 조성한 드론 종합교육 시설인 ‘온빛누리 드론센터’가 문을 연다.
제31보병사단은 “오는 28일 사단사령부에서 소영민 31사단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빛누리 드론센터’ 준공식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현판 제막, 시설소개, 시범경기, 축하 공연 순으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선 나주 문평중학교와 함께하는 드론 축구 경기, 31사단 드론동아리팀이 선보이는 드론 클래식 경기, 민간동호회팀이 시연하는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시범경기도 선보인다.
지난 6월 착공한 ‘온빛누리 드론센터’는 31사단과 광주시가 주축이 돼 총사업비 18억원으로 마련됐으며, 드론 교육장(강의실·실기연습장), 드론 전투훈련장, 드론 레이싱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다.
31사단과 광주시 등은 지난해 10월에 민·관·군·경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드론 TF’를 구성해 중·장기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협약’을 체결했고, 8월에는 ‘국방 특수목적용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군 업무협약’ 등을 거쳐 드론센터를 준공했다.
이전에 조성된 드론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원으로 승인을 받아 서남부권의 ‘드론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북구 오늘 일곡도서관 동아리 발표회

주민 150여명 기량 선보여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뽐내는 발표회를 갖는다.
북구는 “25일 오후 6시 30분 일곡도서관에서 동아리 회원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제18회 일곡도서관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성한 일곡도서관 동아리는 독서, 음악, 학습, 예술 등 4개 분야에서 총 22개 모임 320여명이 활동 중이며, 분야별 연구 활동 및 재능 계

발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10개 동아리 회원 150여명이 나서 연극, 시낭송, 기타, 오카리나, 팝송 등 평소 쌓아온 기량을 지역 주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 앞서 회원들이 준비한 그림자 극과 동화구연 공연을 비롯해 직접 제작한 인형과 소품을 전시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상시험 정보 확대,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정부가 희귀·난치환자의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한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대상 질환, 진행 현황 등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정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확대 공개되는 정보는 ▲임상시험 제목 및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이다. 임상시험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